

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 일시 | 2022. 9. 29.(목) | | |
| 담당 부서 | 도로국 | 책임자 | 과 장 한명희 (044-201-3875) |
|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사무관 강지연 (044-201-3877) |
| 보도일시 | 2022년 9월 3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| |

국토부-인천시-경기도,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힘 모은다 인천~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, 상부道 일반도로화 등을 위한 협약 체결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30일(금)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-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,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 - 본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‘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(‘21~’25)’에 포함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‘인천-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*’의 차질 없는 추진에 양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. * 남청라IC ~ 신월IC, (규모) 19.3km, 4~6차로 (총사업비) 20,856억 원
 - 또한, 기존 경인고속도로가 운영 중인 상부공간을 개선하는 것이 본 협약의 큰 목적 중 하나로 국토부,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.
- 본 협의체를 통해 인천~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,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하도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, 상부도로의 여유 공간에 녹지,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.
 - 또한, 인천·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~인천, 계양~강화 고속도로 사업*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는 것도 협약내용에 명시한다.
 - * (안산~인천) 시흥시~인천시, 연장 19.8km, 4차로 신설, 기본 및 실시설계 중
 - (계양~강화) 인천시 계양구~강화읍, 연장 31.5km, 4~6차로 신설,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중

- 인천-서울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 거리가 약 17분(40→23분) 단축되어 인천시와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길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며, 약 2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.
- 인천~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,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‘27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“인천-서울 노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하고속도로인 만큼 인천광역시, 경기도와 상호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 이라면서,
 - “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대심도, 장대 지하터널에 적합한 방재·환기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지하도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에 방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” 이라고 강조하였다.

참고

인천~서울 지하고속도로 조감도

